



지구촌 식량위기 초읽기

세계곡물비축 48일치 불과... 기상재해 등 원인 한국은 3개월치 보유... 무분별 농지전용 삼가야

엘니뇨가 물고온 범 지구적 이상기후로 인해 심각한 세계 식량위기가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쌀을 제외한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엘니뇨와 연관된 지구촌 재앙은 이미 중앙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에 이르기까지 깊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남미 브라질에선 1천만명이 기아 위기에 빠졌으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선 5백만명이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다. 엘니뇨가 만든 이상 기후는 올해 전세계 37개국 수천만 주민을 굶주림에 빠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식량생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19억톤에 불과해, 37개국이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미 월드워

치 연구소도 세계곡물 비축량이 사상 최저 수준인 48일분으로 줄어들어 오는 2015년까지 약 8억 인구가 식량난에 허덕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식량난은 견딜 수 없는 국제 식량파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국제적 식량위기와 시장파동이 현실화할 경우 곡물자급률이 겨우 30%에도 못 미치는 우리로서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이와관련 최근들어 현저히 취약해지고 있는 농업생산 기반을 다시 점검하고 식량안보를 주안으로 한 전략적 곡물 수급계획을 정부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엘니뇨가 장기화하면 식량부족과 곡물 파동도 만성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

정의 주된 관심사를 식량안보와 환경농업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도시근근의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재배면적 감소도 개선해야 할 부분.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쌀 배리 감자 고구마 잡곡 등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이 지난 10년 동안 24%나 줄었다. 지난해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131만5천ha로 지난 88년 173만6천ha보다 42만1천ha가 줄었다. 생산량도 88년 729만9천톤보다 15.8%가 감소한 614만3천톤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식량 자급률 1% 향상' 운동을 벌이고 있는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박병국(52)회장은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정태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지금같은 IMF체제에선 식량자급이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 연합회는 ▲휴경지 일소로 식량증산 ▲이모작지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심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한 톨의 곡식도 소중히"

<불본행집경>에는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기 전에는 일체 음식을 안 먹었다"고 결심했으나, 부처님의 건강을 걱정했던 정거천(淨居天)의 간청으로 하루에 삼(麻)씨 하나, 보리 하나를 잡숫고 8년간 수도했다는 기록이 있다. 수행자들은 이처럼 목숨을 연명할 정도로만 음식을 섭취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사회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열량의 음식이 필요하지만 승가의 청빈한 발우공양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다. 현재 일부 실직자와 그 가족들은 IMF관리체제로 인해 세 끼 식사를 한 두 끼로 때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동포인 북한을 비롯 세계 각국의 빈민들이 하루 한 끼의 식사를 때우기 위해 돕부림치고 있다. 지혜로운 농경정책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실천해 그들에게 먹거리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불교사회연구소 양재혁 사무국장은 "쓰러져 가는 농업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식량 자급도를 높이는 일은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통일농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햄버거에서 O-157 대장균이 검출돼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지역 대형음식점에서는 불결한 음용수와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사용하다 적발되었는가 하면, 초등학교 집단급식과 결혼 피로연 등 각종 행사에서 집단 식중독 시제가 빈발하고 있다. 여름철에 유행하는 콜레라 등의 각종 전염병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식을 유통과 보관, 조리과정의 청결, 개인위생의 철저한 관리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위생과 관련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지자 주>

■ 물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 <유교경>

■ 비구는 보름마다 목욕해야 하는바, 병 없는 비구는 웅덩이 물을 받아들이고 그날 저녁은 일이 없어야 한다. <사분율>

■ 보살마하살은 입은 옷과 침구를 더럽게 안하고 깨끗하기를 즐기므로 병이 적으니라. <마하반야경>

■ 밥을 다 먹고 나면 치욕(齒肉, 이를 닦는 버들 가지)을 깨물고 맑은 물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근본유부비나율경>

의 거울을 치우며, 방을 청소할 때는 깨끗한 물을 길어다가 수건과 일정한 곳에 수건과 각근(脚巾, 발닦는 형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오분율>

■ 목은 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작은 벌레가 생겨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물은 거르지 않고는 마시지 말아야 한다. <정법범처경>

■ 모든 대중은 모를 지기 물을 걸러 마셔야 한다. 물을 거르고 나서 자세히 보아, 손바닥의 가는 금이 비쳐 보인 뒤에 써야 한다. <승가율>

■ 무릇 옷을 빨면 나쁜 냄새를 제거하고 서캐나 이도 생기지 않아서 몸에 가려움이 없게 된다. <근본살바다부율>

■ 보살은 깨끗함을 좋아하여 번뇌가 없으며, 의복이나 침대도 역시 깨끗하게 병이 적다. <방광반야경>

■ 깨끗한 채소 위에 대소변을 하든가, 눈물 없는 곳을 향해 뿌려야 하며, 병 있는 사람은 타기(唾器)를 사용하되, 모래나 돌 풀 흙 따위를 그릇 속에 들어 넘치지 않게 하고, 자주 씻어서 냄새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근본살바다부율>

■ 비구는 마방(馬房, 말 stable)을 치장하고 침대를 털며, 침구는 벌레 피고 방안

계절을 따라 5근(根,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4대가 뒤바뀌어 늘거나 줄거나 함으로써 물에 병이 나게 된다. <금광명경>

피곤하거나 허약한 이들에게 기력을 보충해 주고 수험생들의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용 기발생기 '코스밋 피라미'이 출시됐다. 동화약품 안에 자수정과 방울수정이 각각 부속돼 있어 기와 에너지를 발생시켜 준다. 체질개선연구회. 가격은 40만원~60만원. (02)792-0960



"인터넷으로 월드컵을 본다"

월드컵 정보에 목마른 축구팬은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통해 월드컵본선에 출전한 32국의 전력과 스타 선수의 이모저모, 재미 있는 뒷얘기 등을 볼 수 있다. 사진은 대한축구협회가 새로 만든 영문 홈페이지 (www.kfa.or.kr).



◇월드컵 관련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	주요내용
www.franx98.com	경기 공식 일정, 결과, 선수 정보, 개최 도시의 역사와 문화 등 관광에 필요한 기본정보
www.fifa.com	국제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 월드컵역사, 경기규칙, 일정, 참가팀 소개
www.wcup.com/uk/	역대 대회 기록, 결승전 특별 집면 동영상 제공
www.worldmedia.fr/soor	본선 진출 32개국 소개 6월12일부터 결승전까지 모든 경기 인터넷 라디오 중계
www.worldcup.com	본선진출국 경기장 소식 및 경기내용 분석
espn.sportsline.com	최신뉴스 경기 일정 팀별 최신뉴스
www.sportsline.com	최신 뉴스 팀 소개, 선수 사진, 인터넷 소문들
www.cnsi.com	최신 뉴스 월드컵 역사 경기 일정, 각 팀 소개
www.kfa.or.kr	한국 축구의 역사, 주요대회 참가기록, 국가대표 선수인상평, 한국축구 최신뉴스
www.worldcupstar.com	한국 및 외국팀 소식, 경기일정, 스타들의 홈페이지 안내, FIFA링크

국가유공자 주택 무료수리

중경전실회사인 금성백조주 택(회장 정성욱)이 지난 94년부터 대전지역의 국가유공자들 가운데 집이 낡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구역을 5년째 무료로 개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 화제. 이 회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추천 받은 국가유공자 가운데 가장 낮은 집에서 생활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가구를 선정해 집을 개량해 주고 있다.

실직자에 예식장 무료로

광주 남구 주월동 하나에식 장(대표 이윤철)은 실직자와 장애인 등 가정형편이 불우한 사람에게 결혼예식을 무료로 치러주기 위해 9월 광주시에 구청과 사회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무료 결혼식을 올릴 대상자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예식장은 구청, 동사무소, 복지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실직자, 장애인, 불우 이웃 등을 추천받아 이들에게 신부화장에서부터 신랑·신부 예복대여, 피아노 축하 연주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신당초등교 호도 약속 10가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모님께 제 얼굴과 모습을 자주 보여 드리고 같이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에 대한 '호도 약속 10 가지'를 외워 실천하도록 이끄는 학교가 있다. 화제의 학교는 신당초등학교(교장 김정자). 신당은 학교 특색사업

중 가족 사랑 다지기의 하나로 정한 호도 약속 10 가지를 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외운다. 호도 약속 10 가지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말로 표현합니다 △부모님의 장점을 흉내내고 본받습니다 △부모님의 단점은 못 본 채하고 모른 척하며 못 들은 척합니다 △(남에게)부모님의 자랑을 합니다 △노후에 잘 돌봐 드릴 것을 미리 약속합니다 등이다. 이와 함께 어깨 두드리 드리기,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 드리기 등 생활에서 실천하는 호도를 조목 조목 강조하고 있다.

공익요원이 택시강도

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강도짓을 한 남양주시청 치수와 공익요원 허태환씨(20)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아파트 앞에서 서울 33아 9783호 택시를 탄 뒤 도봉산 앞에 이르기 운전사 권모씨(42)를 미리 준비한 총기로 위협, 현금 3만여 원을 빼앗은 혐의다.

과외알선 속여 돈 갈취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7일 과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대학생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신모씨(31)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3월 모생활동보금을 통해 "은행 온라인 계좌로 4만원을 입금하면 과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지금까지 모두 1백3명으로부터 4백3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만약 사람이 술을 마시면 게으른 습성을 끌어내고 재물을 낭비하게 된다. 성내는 일이 늘어나서 온갖 다툼이 잦게 된다. 또 옷을 입고 벌거숭이로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정행소집경>

"죽음의 백색가루" 마약.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음식으로 술을 꼽고 그 병폐를 수없이 강조했다. 인류공동의 적인 마약을 없애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전세계 마약퇴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마약특별총회가

세계인구 41%

마약 중독자 유엔 마약 총회 열어

8~10일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마약의 퇴치를 위해 각국 간의 긴밀한 정보교환과 사법공조체제 강화, 마약거래로 생기는 돈의 세탁금지, 향정성성 물질의 불법제조와 판매금지의 목표지향성을 2008년까지로 정하는 등 국제협력체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세계의 마약 생산·밀매현황과 관련, 유엔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소비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3.3~4.1%에 달하는 1억6천2백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증흥불사 · 천일기도 三百日 전국 禪院長 · 祖室 · 方丈큰스님 특별초청

모시는 말씀

한국불교(재)선학원 중앙선원은 김남천, 강도봉, 김석두 선사들을 비롯하여 송만공, 민해한운, 백용성 큰스님들께서 화주가 되어 창건되었습니다. 선학원은 3·1운동을 주도한 국운장출의 원찰이며 해방 이후에는 이효봉, 허동선, 정금오, 이철담 대선사께서 한국 불교계 정화불사를 이끌어 오셨던 조계종 전통종단을 중흥케 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선학원이 한국선종불교의 聖地임은 自他가 아는 事實입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인 禪學院에는 특히 李成桂 太祖大王의 王師, 無學大師께서 宮터로 잡은 창덕궁(지금의 비원)의 벽토를 가지고 송만공 큰스님께서 손수 조성한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선학원의 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은 현재 수석자 정혜선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선학원은 여러 명안조사님의 정기가 서려 있는 곳으로 또한 선학원 중앙선원 동·하안거 방합목에 전국선종종 계열 먼저 실려 있던 시절이 있었음을 돌이켜 볼 때 선학원의 禪風이 일면 한국 禪宗佛敎가 興하고 선학원의 위세가 가라앉으면 한국 禪宗佛敎가 혼돈을 겪는 것을 지켜본 후예로서 웃음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三寶任에 발원하며 34년만의 선학원 단청불사를 계기로 삼아 한국 선종불교 중흥의 도량이 될 선학원 대각불사 서원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 歷史的 佛地에 善男善女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라옵고 단청불사 千日기도 동참공덕으로 가정의 팔란과 고와 액이 소멸되어 다행스러운 주인공이 되시옵길 축원합니다.

아 래

특별초청 **松廣寺 曹溪叢林 方丈 梵日 普成大禪師**

선종총무원 **산림설법 삼장법사 윤성해대법사(선학원 중앙선원장)**

■ 때 : 1998년 윤5월 3일(양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 곳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큰 법당**

■ 주 최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 화주단**

■ 주 관 : 신도회 · 운영위원회 · 합창단 · 108보리심회 · 선정회 · 청년회

■ 문 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 TEL. 732-3327, 720-8583, 720-8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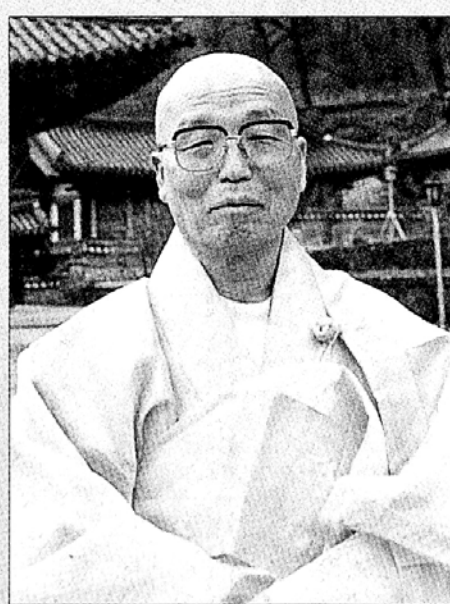
불기 2542년 음 윤5월 3일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원장 삼장법사 윤성해 합창**

千日기도 三百日 大法會

제4회 한국불교전통선(禪)중흥영산대설법회상

松廣寺 曹溪叢林 方丈 梵日 普成大禪師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 범일 보성대선사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증흥불사 개요**

1차

- 기와 개수공사 완료
-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 단청불사 (24년만의 불사) 완료
- 선학원 선방 및 시민선실 내부공사 완료
-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실(5개를 하나로 하는) 공사 시공중
- 일주용 전등설치 건립불사

2차

-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증흥불사 千日기도 三百日 전국선원장·조실·방장큰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敎傳統禪宗興山山法會 主 催 제1회~10회(매 백일간격으로)
- 선학원 창건 사적비 세우기 (31 운동주도 구국선원)
- 한국불교계 정화사 刊行 및 時代 佛敎聖地 宣布法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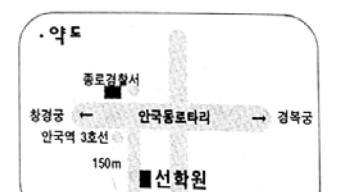
◆ 화 주 단

황거현심 손전여심 오만덕화 박보리성 권지예심 이보현심 박덕순화 이광덕 이관용 박선애일 김복덕선 윤보광심 민길상심 송경원 신옥수 김도원형 김하원 유정혜성 송법성심 정선덕정 정본각성 이법항자 이지혜정 고만덕성 이보현심 운영위원 및 합창단원

◆ 신 도 회

명 예 회 장 염무영원
 영보타원 이연희심 이경희 김명성형 염공덕화 정본각성
 의 회 장 이관용행 회 부 식 유정혜성 황자재심
 부 회 장 이만야행 이법항자
 총 재 무 손전여심 신월명심
 감 사 사 박선체원 권변연화
 운영위원장 염무영원
 합창단 단 장 유정혜성
 총 서 김진실행
 108보리심회 회장 최인순
 총 서 박보리성
 선 정 회 의 이성웅
 부 회 장 박보리성
 총 서 무희은심
 운영위원염무영원

◆ 약 도



● 전철노선: 3호선 안국역 하차
 ● 버스노선: 안국동 증로경찰서 하차 (84, 8-1, 205, 543, 2 & 20, 153)